

극단 살푸리 베를린 / Theater Salpuri Berlin

극단 살푸리 베를린은 1994 년에 한국연극인 Soogi Kang 과 독일연극인 Dietmar Lenz 에 의해 베를린에서 창단되었고, 첫 작품으로 윤이상 작곡의 „피리“를 춤극화 했다.

극단 살푸리는 연극과 더불어 춤과 음악 그리고 동서양 예술분야의 작가들과 작업하며, 한국연극인은 물론, 많은 국제적 다문화 예술인들과 상호하며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플랫폼이다,

한국문화와 예술의 특징을 주제화 시키는 물론, 많은 동시대작품들을 끊임없는 실험정신으로 작품들의 현대적인 파악과 이해분석을 통해 새로운 공연예술양식의 장르발전에 기여하며 현재까지 작업해 왔다.

유럽의 연기메소드(스타니스랍스키, 작 르콕, 그로토프스키)가 동양의 다양한 움직임과 연기메소드(한국의 탈춤과 한국 통성의 발성법, 일본의 노-연극, 선과 명상, 중국의 오페라, 태극권, 기공)가 만나 민감한 문화적인차이를 교감하며, 여러 문화가 가진 예술의 다양성을 뽑아낼 수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 만남을 작업의 과정으로 이끌어 간다.

배우와 무용수들은 나비게이터처럼 다양한 예술형식과 컨셉, 연희적 기술과 창작성 속을 넘나들며 여행하게 된다

Der Schauspieler / Tänzer wird als NAVIGATOR gesehen, der Forschungsreisen unternimmt durch eine Vielfalt von kulturellen Formen, Konzepten, performativen Techniken und Gestalten.

Im Mittelpunkt unserer Arbeit steht der inter-kulturelle Dialog: theater_in_between verschiedenen Kunstdisziplinen und Kulturen. Künstlerisches Ziel von THEATER SALPURI ist es, performative Interferenzen zwischen verschiedenen Kunstformen und Kulturen in unterschiedlichen Kontexten zu erschaffen.

Auf den Feldern des Theaters und des Tanzes existieren heutzutage keine wirklich getrennten Kulturen mehr. Was wir heute sehen, in allen Medien, ist ein Cross-Over von kulturellen Formen, Techniken und Identitäten: traditionell und modern.

극단 살푸리 연혁/ Theater Salpuri Berlin History

2013: 파독 간호사들의 자서전적이야기를

연극 “ 베를린의빨간구두“ 3 부작 예정으로 연구, 제작중

2013: Social-Theatre 프로젝트, 웨익스피어의“ 태풍“

첫공연: 2 월, Madhouse 극장, Sangerhausen

2012: 짜즈& 스토리텔링과 판소리의 만남 „Four Season of Korea“

첫공연 10 월, Stuttgart, Lindenmuseum 극장

2012: 이야기극“6 Friends“- 독일 Grimm 동화,

첫공연:11 월, 축제“ 베를리너 메르헨타게“

2011: 퍼레이드와 퍼포먼스교육- 한국 연극축제 순회공연(남해, 거창, 포항)

“Lachen des Windes-바람의 익살꾼“

2010: 유럽순회공연 “ Lachen des Windes-바람의 익살꾼“

2009: 퍼포먼스와 설치연극, 예술축제“ 48 시간“ 초청공연- „침묵의 소리“

2008: 배우교육- 신체,공간, 오브제 - „바람의 익살꾼“ 와 „구도“

2007 : 6 월, 테아카데미공연장 “ 고통의 경험보고서“ IPA

2006 : Interculturel Performance Academy(IPA)를 결성

2005 : 베를린 아시아-태평양주간 지원초청작, 서울-베를린프로젝트,

프린세스 바리-무조신화 „바리공주“에 관한 연극적 연구,

한국 여배우와 독일 여배우들의 만남과 연극작업

한국 문광부 와 외교통상부 지원

첫공연: 9 월, 문화의작업실 대극장

2005 : 베를린의 아시아 태평양주간-예술축제 „Shamanism Now“

예술감독: Soogi Kang,& Dietmar Lenz

프로그램: 김수남사진전, 예술영화상영, 송현숙 작가회화전시,

심포지움& 토론회- 강준혁교수, 김금화만신, Prof. Hilltmann,

Dr. A. Freudenberg, 최현덕교수, Dr. Hoonam Seelmann

2004 : 12 월,극단 살푸리 10 주년 축하공연 “ 안티고네“-문화작업실 대극장

첫공연: 6 월, 축제초청제작 “48 시간 노이켈른“

2004 : 과천국제한마당예술제 개막 첫공연 -„가문장아기“ 초청연출

2004 : 베를린문화제나트지원 리서치프로젝트:

„바리공주와진오귀곳“연구(서울-진도- 동해안)

2003 : 자서전적 이야기 “소리속의 회심“

첫공연: 10 월, 리히트호프 극장

2003: „Sur-face Berlin“초청연출- 16 개국 예술가들의 공동 퍼포먼스

첫공연: 10 월, 문화작업실 대극장

2002 : 유럽 거리극축제 순회공연 “ Quest-구도“

2001: 탄츠테아터 „Conference of the Birds- 새들의 회합“

첫공연: 7 월, Neue National Galerie Berlin

2000 : 서울예술단 초청연출 뮤지컬“ 대박“

첫공연: 10 월, 동숭아트센터

1999: 독일예술동화 “ Jorinde und Joringel-요린데와 요링엘“

첫공연: 11 월, 문화의 작업실 대극장

1999-2001: 독일, 유럽과 한국순회공연 „그래픽 탄츠테아터“ Quest-구도“

1998: 그래픽 탄츠테아터“ Quest-구도“ 기획제작

첫공연: 10 월, 문화작업실 대극장

1998: 청소년극 “형님, 당신은!“ 두명의 여배우가 하는 흥부이야기

첫공연: 3 월, 문화작업실 대극장

1998: 야외 퍼레이드 „바람의 웃음소리“

첫공연: 5 월, 베를린의 다문화 축제“ 문화의 카니발“ 초청제작

1997:일인 이야기극“ 바리데기“ 첫공연: 11 월, 베를리너 메르헨타게

1997:이야기극 „ 제비다리“ 첫공연 4 월

1995:음악극 „춘향-그 사랑의 길“, 첫공연: 9 월 문화의작업실대극장

1994: 일인 가족극“학소녀“, 첫공연:12 월 프라이에 뷔네

1994: 윤이상작곡을 최초로 안무화한 춤극“ 피리-영혼의 외침“

첫공연: 8 월, Theater am Halleschen Ufer 극장, 1.Berliner

Tanztage 초청공연

1994: 축제 “인간권리와 여성권리“ 초청제작

정신대위안부들을 위한 대동 진혼굿

공연: 3 월, 문화의 작업실대극장